

자아상 회복

- 하신주 (창의적 접근 지역 유치원 원장,
두란노 교회교육연구소 팀장) / 2003.07.08 -

여름 성경학교 camp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 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름성경 학교에 임하시는 선생님들께 '자아상 회복'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까?

만약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좋고, 예쁘고 친구가 많고 재주가 있고 부자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가치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외모, 부모, 성격 과 기질, 은사, 재능, 가정환경, 형제는 내가 선택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에 대하여 아이들은 어떤 반응을 갖고 있습니까?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끄럽다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때문에 삶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자아상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대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 할 것인지 원망 할 것인지 믿고 하나님을 신뢰 할 것인지, 의심하고 불신 할 것인지, 드러내고 나타낼 것인지, 숨기고 감출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곧 나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고 무시한다면 곧 나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지게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작은말 한마디에도 자아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부모님, 형제, 가정환경, 외모, 성격,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불만스러웠거나 부끄러웠던 것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위로해 주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딤후 4장 4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모두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믿고 감사하게 되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곧 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싫어한다면 곧 나를 싫어하는 것이고 그 선물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곧 나에 대한 만족이 됨을 가르쳐 주어야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 아이들의 자아상은 회복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